

經營學 基礎概念의 再檢討

— 特히 企業, 經營 및 管理概念을 중심으로 —

金 元 銖

<目 次>

- I. 序 言
- II. 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의 性格
- III. 經營學의 研究對象
- IV. 經營學 基礎概念의 再檢討
 - 1. 用語 내지 概念의 混亂에 대한 咏味
 - 2. 用語 내지 概念의 整理를 위한 一試圖
- V. 結 言

I. 序 言

새로운 學問 내지 知識의 分野일수록 用語 내지 術語上이나 혹은 概念上의 混沌이 있으리란 것은 당연히 想定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또한 새로운 學問의 하나의 特性임과 동시에 앞으로 學究的 努力이 더욱 傾注되어야만 할 중요한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韓國 및 日本과 같은 漢字使用國에 있어서의 經營學上의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 내지混沌이 있음은 經營學의 體系化와 이의 發展을 위해 不幸한 일이라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用語(terms)가 文字記號로서 어떠한 概念을 象徵的으로 나타내어 주는 (depict) 것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이러한 經營學의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 내지混沌은 바로 經營學上의 概念의 不明確化를 가져다주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經營學의 醇化發展을 沮害하는 主因이라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의 事例를 보면 예컨대 「企業」이라는 用語는 英語의 business 와 enterprise 에 對應하는 譯語로서 二重的으로 사용되고 있고 「經營」이라는 用語는 business, administration 및 management 에 對應하는 譯語로서 三重的으로 混用됨으로

* 引用著者에 대한 尊稱은 省略함.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附設 韓國經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本稿는 文教部 學術研究助成金의 助成에 의한 研究結果임.

써 用語上의 混亂을 加重시키고 있고 「管理」라는 用語와 「經營管理」라는 複合語는 각각 administration 과 management 에 對應하는 譯語로서 二重的으로 混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反面 이러한 混亂을 英語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business management 에 대해서는 「企業經營」 또는 「經營管理」라고 하는 두가지 譯語가 混用되고 있고 business 에 대하여는 「企業」, 「事業」 및 「經營」이라고 하는 세가지의 譯語가 混用되고 있고 enterprise 에 대해서는 「企業」이란 單一의 譯語가 混用되고 있으나 美國語의 enterprise 는 반드시 우리가 쓰고 있는 「企業」이라는 概念과 一致하지는 않으며 또한 administration 및 management 에 대해서는 특히 「經營」, 「管理」 또는 「經營管理」라고 하는 複合語의 세가지의 譯語가 混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서 볼 때 이러한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은 「經營」이라는 用語의 無批判的인 混用때문에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用語는 組織概念인 business 에 對應하는 譯語로 쓰임은 물론 行動 내지 活動概念인 administration 및 management 에 對應하는 譯語로도 混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混亂은 종래 「經營」이라는 用語가 獨逸經營學上 동일한 組織concept으로서의 「企業」으로 번역되는 Unternehmung 과 구별되는 별도의 組織concept으로서의 Betrieb 에 대한 譯語로 쓰이던 것을 美國經營學이 移入되자 이를 無批判的으로 business 는 물론 administration 또는 management 에 대한 譯語로서 三重的으로 混用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

그런데 “企業 그 自體가 가지는 性格과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立場의 複雜性때문에 생기게 되는 經營學上의 [研究 내지 認識] 對象의 措定과 이들 對象에의 接近方法에는 아주 多樣性이 있음과 아울러 各國에 있어서의 이들 企業의 特殊性과 思想的 내지 學問的傳統의 獨自性이 加味됨으로써 經營學說의 內容은 아주 複雜多岐化되고 있다”⁽²⁾고 하는 經營學史上의 立言에 미루어 볼 때 上述한 바와 같은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은 後進的 立場에서 先進國의 研究成果를 受容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經營學의 現實에 미루어 당연히 겪으리라 想定되는 混亂이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先進諸國의 이들 多樣한 經營學上의 研究 내지 認識對象의 措定과 이들 對象에의 接近方法의 特殊性 내지 差異에 대한 理解와 批判을 통한 受容이 아니라, 沒理解와 無批判의 機械的 내지 方便的인 受容이 빚은 歸結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때 이러한 用語 내지 術語上의 混亂 나아가서는 概念上의 混亂은 결국 研究 내지 認識對象의 措定 및 研究方法과 관련되어 派生된 것이며 이의 多樣性과 이의 無批判的인 受容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漢字使用國의 經營學에 있어서의 基礎concept의 混亂을 가져다 준 것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이러한 混用의 事例에 대하여는拙稿「企業과 經營의 概念의 差異에 관하여－하나의 假說的推論」，
서울大學校經營大學院，經營學論文集，1972.12. pp.21~25 參照。

(2) 經營學研究그룹，經營學史，1972，序文，p.1

이와 같은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먼저 經營學의 性格을 科學과의 關聯下에 파악하고 나아가서 이를 전제로 한 研究對象의 指定問題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經營學上의 基礎概念인 企業, 經營 및 管理의 概念上의 問題를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II.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의 性格

經營學⁽³⁾이 科學(science, Wissenschaft)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科學이란 일반적으로 “經驗이나 經驗에 입각한 概念, 判斷 및 結論에 관한 理念과 假說에 의해 統一的으로 結合된 多樣性의 모든 것이 秩序化된 것으로서 이는 固有의 領域을 形成하고 있는 原則의으로는 同種의 認識의 體系의in 統一性 또는 原則에 따라 整序化된 認識의 全體인 것이다”⁽⁴⁾. 따라서 科學의 課題은 認識에 있으며 이러한 課題은 現實 즉 素材와 特殊領域중의 一定한 領域을 指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素材의in 對象關係에 따라 여러가지의 個別 科學 내지 分科學이 區別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自然科學과 文化科學 또는 精神科學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分科學의 内部에서 역시 素材의in 對象關係에 따라 前者에서는 植物學, 化學 및 物理學 등으로, 後者에서는 宗教學, 經濟學 및 法律學 등으로 구별되며 나아가서 이러한 一連의 科學의 領域 즉 個個의 學問中에서 特수한 問題의 設定

- (3)(a) 이에 대한 정확한 英語나 獨語의 對應語를 찾기는 어렵다. 比較經營學의으로 獨逸의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의 内容을 간추려 英譯紹介한 슈란츠(Schranz, A)는 獨逸의 經營經濟學에 대해 The German Science of Business Management라는 譯語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슈란츠가 獨逸에서는 經營經濟學이, 英美 특히 美國에서는 經營管理學(Science of Business Management; 단 이 譯語는 慣用에 따른 것임)이 다른 研究에 비해 가장 뛰어났다고 보아 兩者를 等置시키지 않고 對比시키고 있는듯 하다고 한다.(Cf Schranz, A, The German Science of Business Management, A Sketch of its Characteristic, 1929, 日日譯書, 譯者序文 pp. 2~3) 日本의 경우에는 經營學 내지 經營經濟學(Business management, Betriebswirtschaftslehre)을 等置시키는 事例가 있다(古川榮一 新版 經營學入門, 1966 p. 19 參照) 따라서 염밀한 의미에서 經營學은 예컨대 슈란츠가 사용한 business-science이나 獨語의 Betriebslehre도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用語는 아니다.
- (b) 경우에 따라서는 經營學을 經營經濟學과 等置시켜 兩者間에 互換性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대한 英獨語의 譯語로서 Betriebswirtschaftslehre, Wirtschaftslehre der Unternehmung, Science of Business, Science of Enterprise,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rial Economics 등의 여러 用語를 無批判의으로 사용하고 있는 事例도 있다(小島三郎, ドイツ經驗主義經營經濟學の研究, 1965. p. 1 參照).

- (4)(a) Moxter, A. Methodologische Grundfr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1957, 同日譯書, p. 52)
(b) 이와 같은 科學의 定義는 지나치게 嚴密性이 강하여 이로 인한 어떤 研究의 科學性與否가 論難의 對象이 됨에 따라 이러한 定義에서 脫却하여 科學을 實驗 및 觀察의 결과로서 一連의 概念 및 概念的構造物(conceptual schemes)이 相互關聯된 것(interconnected)으로서 이는 앞으로의 보다 高次의in 實驗과 觀察을 할 價值가 있는 (fruitful) 것.(Conant, J.B Science and Common Sense, 1951, p. 25)이라고 하여 實用主義의in 對象에서 科學을 有效科學(Valid Science)으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이는 嚴密한 規則이나 原理 또는 本質의in 理論의 構築을 위한 暫定的하節次 내지 過程上의 努力도 科學의 임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拙稿 「마아케팅科學과 倫理」, 서울大學校 商科大學韓國經營研究所, 經營論集, 第VI卷, 第4號, 1972, 12. pp. 6~7 參照) 그 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이러한 論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즉 認識傾向 내지 考察方法에 따라 더욱 細分을 하게 되는 것이다⁽⁵⁾.

사실상 經營學이 비록 下述하는 바와 같이 약간의 論難의 餘地는 있으나 대체로 「經營」이라는 固有의 研究領域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同種의 認識이 原則에 따라 體系的으로 整序化된 認識의 實體 즉 知識의 實體(body of knowledge)인 이상 科學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經營學上 特殊한 問題이 設定 즉 認識傾向이나, 혹은 考察方法에 있어서의 差異에 따른 區別에 따라 經營學의 性格이 달라질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이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存在(das Seinde) 즉 「現實世界의 認識과 理解를 指向하는 問題設定」이며 다른 하나는 存在當爲(das Seinsollende) 즉 「現象의 目的에 適合한 形成을 위한 基準과 方法의 研究를 指向하는 問題設定」이다. 前者は 理論的 내지 純粹科學으로서 存在와 그 本質 및 그 關聯 또는 法則을 획득하고자 努力하며 그러한 경우 存在하고 있는 것의 純粹한 描寫에 限定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方法이나 目的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存在의 形成과 어떠한 關聯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는 단순히 存在(Se-so-sein)를 記述하려는 것은 아니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Warum-so-sein)하는 問題를 연구하는 것이다⁽⁶⁾.

이에 대해서 後者는 實踐的, 應用的 내지 規範的科學으로서 이의 課題는 새로운 手段이나 方法 또는 目的을 宪明하는데 있으며 換言한다면 이는 思考上の 現實을 探究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는 存在(das Sein)의 形成 및 그 本質과 法則을 認識하려는 것이다⁽⁷⁾. 따라서 前者は 存在把握(Seinserfassung)과 現實認識(Wirklichkeitserkenntnis), 後者は 存在設定(Seinssetzung)과 現實形成(Wirklichkeitsformung)을 각각 그 最終目的으로 하는 것이다⁽⁸⁾.

이에서 미루어 經營學의 科學的性格과의 관계하에서 볼 때 이에는 理論科學 내지 純粹科學 또는 基礎科學의 性格을 가지는 것과 應用科學, 實踐科學 내지 規範科學의 性格을 가지는 것의 두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後者の 경우 實踐的應用科學과 規範的科學은 특히 沒價值性(Wertfreiheit)의 觀點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므로 兩者는 엄밀히 区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즉 應用的 내지 實踐的科學은 이에 의해 人間의 意圖가 가장 合目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原則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임에 대해 手段의 合目的性이나 改良 또는 일정한 目的達成을 위한 方法은 規範的科學에 있어서는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學問에 의해 다루어지는 目標 내지 目標 그 自體가 문제가 되는 것으

(5) Moxter, A., a a O. 同日譯書, p. 52 參照.

(6) 이는 暫定的인 것임.

(7) ibid, p. 53 參照.

(8) ibid, p. 55.

(9) cf. Tillich, P., Das System der Wissenschaften nach Gegenständen und Methoden, 1923, S. 60 u. s. 64.

로서 이러한 研究의 最終目標는 普遍的으로 妥當하는 目的의 設定에 있는 것이며, 이의 探究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倫理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實踐的 科學은 嘗爲(Sollen)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주어진 目標(어떠한 理由에서건 그 實現을 위해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어떻게 해서 달성될 수 있는가를 밝혀줄 때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追求되는 目的是 문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與件으로 理解되고前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¹⁰⁾. 이에서 볼 때 純粹科學에 對立되는 應用科學으로서의 經營學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領域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學問에 있어서의 純粹部門과 應用部門은 어떠한 關聯을 가지는 것일까? 應用科學은 아직껏 實踐에서 應用되지 아니한 處理를 叙述하는 것이므로 定義上으로 보아 항상存在하고 있는 것만을 叙述할 수 있는 純粹科學 내지 理論보다는 한발 앞선 것인데⁽¹¹⁾, 이를 위해서는 存在하고 있는 것 즉 이미 實踐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處理의 合目的性을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이와는 相異한 形成에 대한 諸提案의 比較를 통해 이 處理를 確定하는 것만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理論的認識에 立脚하여 여태 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處理를 만들어 냈으로써 實踐에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여 行爲의 再教育과 改善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는데 應用科學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¹²⁾. 그런데 이러한 현재 행해지고 있는 處理의 合目的性에 관한 判斷 및 經營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手段과 方法의 獲得은 評價되어야만 하는 것의 本質, 그 關聯 및 그 基礎가 되어 있는 合法則性에 관한 綿密한 知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必然的으로 存在의 認識에 限정되는 純粹 내지 理論的經營〔經濟〕學이 應用을 指向하는 經營〔經濟〕學의 不可缺의 構成要索로서 先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精密한 基礎研究 즉 純粹經營〔經濟〕理論의 完成은 應用的 經營〔經濟〕學에 賦課되고 있는 家踐的課題의 履行에 대해서도 충분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理論的基礎作業이 不充分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實踐的 處理方案에 관한 提案은 現實의 解決에 有用하지 못한 때 그 까닭은 理論的 基礎作業이 不完全하다는 것은 결국 現實에 있어서의 本質의 影響要因 또는 이들의 關聯을 옳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이를 看過하여 옳바르게 把握하지 못하였기 때문⁽¹³⁾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成立되는 應用科學的研究도 결과적으로는 不完全한 것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科學으로서의 經營學에는 純粹 내지 基礎 科學으로서의 經營學과 應用 내지 實踐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의 兩領域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兩者的 差異는 對象의

(10) Moxter, A. a.a.O., 同日譯書, p. 55

(11) ibid, p. 57.

(12) Schmalenbach, E., Neue Aufgaben der Betriebswirtschaftslebre 1938 1938 s. 6

(13) Moxter, A., a.a.O., 同日譯書, pp. 70~72. 參照。

差異에 있는 것이 아니라, 認識 내지 研究方法 즉 特殊한 問題設定의 差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應用科學은 단순한 技術論(Kunstlehre)과는 다른데 왜냐하면 “科學이란 存在科學的認識에 立脚한 聯關係 또한 遺漏가 없는 理論的 基礎가 주어질때에 成立되는 것이나 職人的 作業은 習慣的 活動에 대한 偶然한 經驗 및 觀察의 集積이 차례로 承繼되는 경우에 存在하는 것”⁽¹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處理의 改善은 經驗이나 혹은 偶然에 의해 德成될 수도 있는 것이며 여기서는 處理의 「現在의 모습」(So-sein)만을 다루고 「왜 그런가(Warum-so)」하는 問題는 다루지 않으므로 科學일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學問에 있어서의 純粹한 部分과 應用의 部分은 서로 밀접한 관係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理論的 科學에 立脚하지 아니 하는 家踐的科學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므로 이들 兩概念은 菲연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理論的研究와 實踐的研究는 相互補完의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經營學은 이를 모두 包括하는 學問體系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經營學이 暫定으로 經營⁽¹⁶⁾을 研究對象으로 한다고 할 때 經營의 構造는 물론 機能에 대한 基礎의 内지 純粹科學의 認識 内지 理解가 필요함은 물론 이러한 理解와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構造나 機能面에서의 再形成을 위한 應用科學의 理解와 認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때 獨逸經營學上의 理論的研究는 前者인 純粹部分에 해당하는 學問部分이라 할 수 있으며, 技術論的, 規範論的 内지 美國의 管理論的研究는 應用科學的研究의 方向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經營에 대한 多面的인 問題의 設定 즉 認識傾向이나 考察方法의 多樣性은 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經營⁽¹⁶⁾에 대한 綜合的理解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完璧한 知識體系로 整序되지 아니한 翫은 科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認識함으로써 종래의 科學의 定義에 대한 지나친 嚴密性으로 인한 自己閉鎖의 混亂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예컨대 사이몬(Simon.H.A)은 科學이란 “發見된 事項의 體系가 아니다 事實을 발견하고 檢證하기 위한 또한 事實의 一般化를 위한 一連의 技術이다⁽¹⁷⁾”라고 하는 提言은 吟味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科學認識에 立脚하면 學問上의 混亂이나 혹은 理論과 應用사이의 混亂도 당연히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으로서 “混亂이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한 進步의 別名이다”⁽¹⁸⁾라고 하는 樂觀的 見解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經營學研究上의 多樣한 諸成果를 包括的으로 受容하여 體系化함으로써 「經營」⁽¹⁶⁾에 대한 全一的 内지 綜合的

(14) cf Tillch, P., a.a.O. S. 65.

(15) Moxter,A., a.a.O., 日譯書, pp.55~57 參照。

(16) 暫定으로 經營學의 研究 内지 認識對象을 經營으로 보는 것이므로 下述하는 研究對象論과는 반드시 關聯이 없음。

(17) Koontz, H. ed., Toward a Unified Theory of Management, 1964, p.80.

(18) ibid, p.82.

인 理解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處理의 方法과 手段의 開發을 위한 理解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處理의 方法과 手段의 開發을 위한 應用科學的研究가 併行되어 이루어짐으로써 經營學의 實踐的課題가 解決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觀點에서 經營學의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의 指定에 대한 問題를 다른 다음 經營學上의 基礎概念에 대한 檢討를 試圖하기로 한다.

III. 經營學의 研究對象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經營學은 暫定的으로 「經營」을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으로 하는 것이라는前提下에 이의 科學的 性格을 다루어 보았는데 이하에서는 과연 經營學의 認識 내지 研究對象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의 經營學에 있어서는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이 論理的으로 명확히 異악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러한 問題에 대한 重要性을 認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쉐프르그(Schönpflug, F)는 “종래의 經營學의 歷史를 보면 經營學의 對象의 論理的 特色 등 은 說明의 中心이 되지 않고 반대로 그와 같이 看做되고 있는 對象을 전제로 바로 이의 學의 性質이나 特殊한 認識過程이나, 그 對象에 固有한 考察方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有한 本質을 自覺시켜주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科學全體의 構造決定上에서 가지는 對象問題가 가지는 특히 重要한 意義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껏 이 問界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面에서 暫昧함이 남아 있다”⁽¹⁹⁾고 하여 對象規定의 未洽함을 論難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쉐프르그이전에 있어서는 단 두사람의 經營學者 즉 닉크리쉬(Nicklisch, H)와 라거(Rieger, W)만이 對象規定의 문제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그들의 經營學體系의 中核에 두었으나, 이들은 對象指定에 있어 相反된 結果에 도달하고 있는데 즉 前者は 經營學의 對象을 「經營」으로 보고 이의 最高의 同一性原理를 「經濟性概念」에서 찾고 있으나 後者は 「企業」을 斯學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동시에 「利益性」으로서 이의 窮極의 同一性原理로 보고 있는 것이다⁽²⁰⁾.

사실상 지베르(Sieber E.H)에 의하면 오늘날의 獨逸의 經營經濟學界에는 對象規定上 근본

(19) Schönpflug, F., Untersuchungen über den Erkenntnisgegenstand, der allgemeinen und theoretischen Betriebswirtschaftslehre als Lehre von den Wirtschaftlichen Gebilden, 1936, S.2.

(20) 酒井正三郎, 經營學方法論, 1966, pp. 31~32

적으로對立되는 두가지의 見解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經營學 내지 經營經濟學의 對象을 經營 또는 經營經濟로 보는 見解이며 다른 하나는 企業 내지 企業經濟로 보는 見解이다. 그런데 이러한 兩見解의 學界에서 占하는 勢力의 分布를 보면 첫째의 見解가 優勢하며 後者의 見解가 劣勢에 있다고 한다⁽²¹⁾. 이와 같은 영향은 漢字使用國인 韓國과 日本의 經營學文獻에도 나타나 있는바 역시 前者が 壓倒的인데, 參照文獻을 一覽表化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經營學의 研究對象⁽²²⁾

經 言	經營經濟 ⁽²³⁾	企 業
蘇 真 德 (p. 18)	鄭 守 永 (p. 42)	姜 應 五 (p. 36)
黃 一 清 (p. 17)	黃 大 錫 (p. 17)	本間幸作 (p. 23)
李 氣 乙 (p. 53)	文 光 千 (p. 13)	小高泰雄 (p. 19)
任 翱 淳 (p. 17)	朴 運 盛 (p. 13)	池内信行 (p. 2)
姜 玖 柱 (p. 19)	姜應五(p. 47, p. 50) ⁽²⁴⁾	
金 鏞 洪 (p. 51)	古川榮一 (p. 20)	
尹世亘, 晉倫鉉 (p. 38)		
占 部 都 美 (p. 1)		

註, ()는 參照文獻의 페이지 임. (資料源은 註 22 參照).

(21) 同前書, P. 8 參照.

(22)(a) 經營으로 指定한 文獻.

蘇真德, 經營學原論, 1972.

黃一清, 經營學原論, 1964.

李氣乙, 經營學原論, 1965.

任翱淳, 經營學原論, 1969.

姜致柱, 經營學原論, 1973.

尹世亘, 晉倫鉉, 新經營學原論, 1973.

占部都美, 近代經營學, 1957.

(b) 經營經濟로 指定한 文獻

鄭守永, 新稿新經營學原論, 1971.

黃大錫, 新稿經營學原論, 1970.

文光千, 新經營學原論, 1971.

朴運盛, 新經營學總論, 1972.

姜應五, 現代經營學原論, 1974.

古川榮一, 新版經營學人門, 1966.

(c) 企業으로 指定한 文獻

姜應五, 現代經營學原論, 1974.

本間幸作編, 經營學, 1959.

小高泰雄, 經營學 課題と 方法, 1967.

池内信行, 經營經濟學總論, 1964.

(23) 古川榮一와 姜應五는 經營과 經營經濟를 同義語로서 代替的으로 사용하고 있다. (古川榮一, 前揭書, p. 28, 姜應五, 前揭書, p. 47. 및 p. 50)

(24) 姜應五는 한편에서는 企業으로 指定하고 (姜應五, 同前書, p. 36) 다른 한편에서는 이의 對象을 經營 또는 經營經濟로 二重的으로 指定하여 (同前書, p. 47 및 p. 50) 混亂을 빚고 있다.

이에서 보면 역시 독일의 경우와 같이 經營 또는 經營經濟로 研究對象을 指定한 見解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 經營 내지 經營經濟를 指定하는 見解가 많은 까닭은 要言한다면 그것은 前世紀末로부터 종래의 經營(經濟)에 대해 經濟學者로부터 그것은 「私利를 위한 學問」이라는 非難을 강하게 받아 왔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類推하고 이러한 論難에서 脱却하기 위해 經營學者가 이에 對應하여 講究하게 된 手段의 하나는 이 科學의 研究對象을 擴大하여 各種의 經營을 包括함과 아울러 이를 「共同經濟的生產性」 또는 「經濟性」과 같은 觀點에서 考察하려 한데 대해 다른 하나는 技術論을 否定하여 科學의 인 즉 순전히 實在의 認識만을 目的으로 하는 私經濟學의 입장에서 考察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²⁵⁾ 고 하는 立論을 吟味해 볼만한 價值가 있다고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經營學者가 私利의 學問을 追求한다는 非難에서 脱却하기 위하여 經營學의 研究 내지 認識對象을 經營 내지 經營經濟로 指定하였는데 대해서는 知識의 存在拘束性을 다루는 知識社會學的立場에서 본다면 비록 假說的으로나마 首肯이 가는 經營學的 事實이 여려모로 많기 때문이다.

첫째로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Erkenntnisobjekt)은 經驗對象(Erfahrungsobjekt)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經驗對象을 통해서는 결코 認識이 생길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經驗이란 斷片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아주 多樣한 것이므로 이것이 知覺을 통해 어느 정도 整序된 모습으로 意識上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主觀의 映像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經驗對象에 思惟的加工이 加해 짐으로써 概念이 형성되고 이러한 概念에 입각하여 現實을 비추어볼 때 그기에 비로소 認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現實을 바로 認識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언제나 間接的이며 媒介的인 것이다. 따라서 科學的思惟를 전제로 하는 한 이러한 思惟過程은 排除될 수는 없는 것이다⁽²⁶⁾.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는 無限한 多樣性을 가진 現實의 世界가 存在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個個의 모습 그대로 認識한다는 것은 限界가 있는 人間精神으로는 原則的으로 解決할 수 없는 課題이며⁽²⁷⁾ 現實의 世界, 行爲의 世界에 對立하여 科學의 世界 내지 理念의 世界가 있는데 後者에게 있어 現實이란 모두 퍼낼 수 없는 [마치 우물과 같은] 龐大한 資料의 集積 즉 「經驗의 實在」로서 科學은 이에서 認識의 對象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 科學이란 思惟에 의하여 이러한 現實의 모든 偶然性을 없애고 現實을 內的本質性을 바탕으로 나타냄으로써 이 現實을 征服하고 精神的으로 그것을 자기의 所有物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科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經驗的現實에 對應하는 또 다른 하나의 現實 즉 여기서는 보다 高度의 또한 純粹한 形式으로 經驗의 現實이 再現된 現實換言한다면 客觀的現實

(25) 酒井正三郎, 前掲書, pp. 9~10 參照。

(26) 池内信行, 現代經營理論の 反省, 1958, p. 82 參照。

(27) Rickert, H, Die Grenzen Naturwissenschaftlicher Begriffsbildung, II Auflage, 1913 S. 31.

을 設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的·客觀的 現實을 經驗現實로 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科學의一般的인 主題인 것이다⁽²⁸⁾. 그런데 이와 같이 함으로써 設定되는 精神的 내지 客觀的現實은 經驗的現實의 再現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思惟가 統一的·法則的 樣式에 따라 經驗資料를 論理的으로 加工하는 基礎的諸形式인 方法에 따라야만 하며 그 결과 設定된 精神的·客觀的인 現實은 經驗的現實의 內實 내지 本質을 충분히 說明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볼때 獨逸經營學上에 컨대 “營利追求를 중심으로 하는 企業概念은 經濟發展의 정도가 낮아서 生產企業보다는 流通企業으로서의 性格을 가지는 商業과의 關聯下에서는 妥當할 수 있었으나, 生產企業이 大規模化되어 生產經濟로서의 企業의 實體가 表面化되게 됨에 따라 营利目的과 生產實體라는 兩側面과 관련된 두 가지 意味를 企業이라는 하나의 用語로서 표현할때에는 여러모로 混亂이 隨伴되므로 經濟學者는 일반적으로 企業concept은 주로 营利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手段으로서의 實體인 生產經濟를 經營이라 하게 되었다”⁽²⁹⁾고 하거나 나아가서는 “生產經濟가 더욱 발전됨에 따라 經營을 이러한 营利目的의 달성을 위한手段만으로는 볼수는 없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生產이란 ① 企業의 营利의 目的에 追從하는 技術的手段만은 아니며 그 自體로서 獨自的인 經濟領域을 가지는 것이며, ② 生產이란 营利를 追求하는 企業만의 獨占物은 아니며 나아가서 营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公企業이나 組合등에 의해서도 营爲된다는 事實에 隨伴하여 종래 营利目的에 限定하여 생각되어 온 企業과는 별도로 그手段으로서가 아니라 그 自體 獨自의 意味를 가진 經營經濟 즉 經營을 理解할 수 있게 되었다”⁽³⁰⁾고 하듯 동일한 實體로서의 企業과 經營을 區分하여 認識하려 하고 있는 데 이는 結局 당시의 社會的 條件 즉 存在의 拘束下에 이루어진 思惟의 結果로서 형성된 知識이 制約을 받은 것이라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經營을 上述한 바와 같이 概念함으로써 종래의 狹隘한 利潤追求中心의 企業concept에서 脫却하게 되어 营利性을 追求하지 않는 公企業이나 協同組合에도 妥當하는 概念定立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는 곧 利潤追及이라는 营利性이 經營의 經濟概念에서 捨棄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이에서 미루어 보면 經營學의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을 經營으로 指定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學究的努力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思惟 내지 認識의 存在拘束性에 緣由다는 것이라 않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上述한 바와 같은 「私利를 위한 學問」이다는 非難에 대응하여 利益의 當然性을 正當화하지 못하고 이에서 逃避함으로서 實體로서는 동일한 것을 새로운 經營이라는 認識對象으로 指定치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곧 獨逸의 경우에는 英國과는 달리 社會連帶意識

(28) []는 筆者の 追加分임. Schönfling, F., Betriebswirtschaftslehre, Methoden und Hauptströmungen, 1954, 同日譯書, p.4

(29) 古川榮一, 前揭書, p.25. 鄭守永, 新經營學原論 1970. p.41, 李氣乙, 前揭書, p.57 參照.

(30) 古川榮一, 前揭書, pp.26~28 參照.

(31) 占郎都美, 前揭書, p.6. 參照.

이 강하여 國家 내지 國民으로서의 全體 내지 共同體的理念이 앞섰기 때문에 私利는 賤視
내지 輕視되는 社會的風土가 經營學化를 促求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產業革命을 겪는 過程上 民間資本形成度가 낮아서 國家資本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公企業의 經營體가 많이 設立되어 經驗對象上 이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經營學者는 종래의 支配的이던 經驗對象인 私企業에 대해 定立하였던 営利中心의 企業概念으로서는 經驗的現實을 완벽하게 精神的·客觀的現實로 再現할 수 없는 未洽함이 있었고 또한 이는 下述하는 바와 같이 過去의 企業concept을 主軸으로 하여 形成되어온 經營學前史的成果를 拒否할 수 없었기 때문에 営利center의 企業concept이외의 새로운 認識對象을 指定함으로써 經驗對象을 보다 충실하게 또한 包括的으로 再現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上述한 바 經營經濟學으로 發展的解消를 하기 이전의 經營學前史的 成果인 商業學이나 商事經營學 및 私經濟學 또는 個別經濟學 등은 모두 営利center의 企業concept을 中心概念으로 하여 體系化된 龐大的 知識體系이므로, 後學들은 이러한 經營學前史的인 學問의 遺產을 承繼하는 立場에서 既存의 企業concept의 再定立을 위한 試圖는 既存의 學問의 體系에 대한挑戰으로 看做될 수 있었고 또한 이는 學問의 傳統의 神聖不可侵性에 대한抵抗으로 認定될 수 있었으므로 계과적으로는 遷回的으로 동일한 하나의 存在實體에 대해 다른 認識對象을 指定하려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企業과 經營의 概念的 區別이 이루쳐야만 했던 까닭은 결과적으로 既往에 定立된 企業concept의 挾隘性과 그 特殊歷史的 認識의 限界性으로 인한 한정된 思考領域의 範疇內에서 實體面에서는 같은 것이나 所有面에서 異質性을 가지는 私企業과 公企業이 併存하는 經驗對象에 대한 全一的 내지 包括的인 認識의 必然性이 提起됨에 따라 既往의 先驗的概念然(?)한 概念的範疇를 脫却할 수 없어 종래의 挾隘하고 私的利益追求 중심의 企業concept과 이를 土臺로 하여 成立되었던 經營學前史的 成果는 그대로 承繼하는 대신 窮餘之策으로 經營이다는 個別의 認識對象을 存在論的制約 아래 指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할 수 있으며⁽³²⁾ 만약 企業concept을 再定立하거나 利益에 대한 새로운 解釋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³³⁾ 이러한 二重的인 認識對象의 指定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想定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企業實體上으로는 認識對象上의 區別의 必然性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獨逸의 經營(經濟)學의 課題는 企業에 있어서의 經濟的 意思決定(Okonomische Entscheidungen)의 研究이며 이러한 경우 企業이나 經營이라고 하는 表示는 같은 意味로 사용된다. 따라서 經濟的領域에 妥當하는것이 企業이고, 技術的인 領域에 妥當하는

(32)拙稿「企業과 經營의 概念的區別에 대하여」서울大學校經營大學院, 前揭書, p.31 參照.

(33) 이의 可能性에 대한 試論的인 論議는拙稿, 前揭論文, 同前書, pp.32~34 參照.

것이 經營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學問이 經營經濟學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 아무런 關係도 없는 것”⁽³⁴⁾이라고 하는 主張도 實體的으로는 兩者가 같은 것임을 示唆하는 것이라 않을 수 없으며 비록 經營學의 對象을 經營經濟로 보는 입장에서도 “企業은 全體로서 어떠한 경우이건 生產單位이며 또한 經營經濟로서는 물론 하나의 經濟單位로서 단순히 그 一部도 아니며 全部이다”⁽³⁵⁾. 따라서 “企業을 經營經濟學의 對象에서 除外하면 이 科學의 内容은 空疎化될 危險性이 있으며 企業이 經營經濟學의 對象이 되는 것은 그것이 經營經濟로서의 特質을 가지기 때문이다”⁽³⁶⁾라고 하도 立言도 暗默的으로 企業과 經營經濟는 實體上으로 같은 것임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를 때 經營學의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은 目的構成體로서 形成되어 存續하고 있는 有機的 實體로서의 企業으로 指定한다고 하여도 無妨할 것이며 이 概念에 따르는 営利性은 企業의 營業成果의 評價를 위한 貨幣價值計算에 의해 測定되는 剩餘概念으로 보면 概念의 混亂도 脫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經營學基礎概念의 再檢討

I. 用語上의 混亂에 대한 咏味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獨逸經營學上 混亂을 가져오게 한 主因은 하나의 目的構成實體로서의 企業이라는 經驗對象에 대해 「企業(Unternehmung)」과 「經營(Betrieb)」⁽³⁷⁾라는 別個의 認識對象을 指定함으로써 派生된 것임을 보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獨逸經營學의 研究成果가 漢字使用國의 經營學界에 먼저 移入되면서 뒤이어 美國의 管理技術論의 經營學의 研究成果가 다시 移入되자 既往에 移入되었던 獨逸經營學의 概念에 대한 譯語인 企業과 經營이라는 用語를 아무런 概念的檢討없이 英語上의 用語 내지 術語에 無批判的으로 對應시켜 사용한데서 漢字使用國의 經營學의 基礎概念上에 混亂이 加重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왜냐하면 英語의 business management에 대해서는 企業管理 또는 經營管理 나아가서 潛在的으로는 企業經營이라는 譯語가 사용되고 있고 business에 대하여는 企業, 事業 및 經營이라는 譯語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enterprise에 대해서는 企業이라는 譯語가 일반적으로慣用되고 있기는 하나 administration과 management에 대해서는 經營, 管理 및 經營管理라는 複合語의 세 가지가 混用되고 있고⁽³⁷⁾뿐만 아니라 business enterprise에 대해서는 営利企業이라는 譯語가 使用되기도 하고 business principles에 대해서는 営利原則이라는 譯語도

(34) Moxter,A. a a O, 同一譯書, 「日本語版への 序文」 pp. 157~158 參照.

(35) 酒井正三郎, 前揭書, p. 51 參照.

(36) 同前書, p. 50.

(37) 抽稿「企業과 經營의 概念의 區別에 관하여」서울大學校經營大學院, 前揭書, p. 25 參照.

(38) Veblen,T.,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1904, 同日譯書, p. 1.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이에 미루어 볼 때 用語 내지 概念의 混亂은 極에 달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왜냐하면 後者에 따를 때 business는 營利로 되므로 이를 經營으로 번역하는 立場과는 概念上 正反對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서 보듯이 既往에 移入하여 慣用되고 있는 獨逸經營學上의 概念에 대한 譯語가 無批判的으로 美國經營學上의 用語에 對應하여 쓰이고 있는 데 이는 美國의 그것과는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흔히 企業이라는 用語가 그 譯語로서 對應하여 쓰여지고 있는 英語인 enterprise나 business의 경우 이는 반드시 獨逸經營學上에서 定立되고 慣用되고 있는 企業概念과 一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美國의 경우 예컨대 enterprise와 business라는 兩用語는 business enterprise와 같이 合成語로 사용되기도 하며⁽³⁹⁾ 또는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 또는 economic enterprise와 같이 使用되기도 하며⁽⁴⁰⁾ 혹은 nonbusiness enterprise로도 사용되고⁽⁴¹⁾ 있어서 예컨대 business에 經營이라는 用語, enterprise에 企業이라는 用語를 對應하는 譯語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上述한 用例에 대한 對應譯은 無意味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Koontz와 O'Donnell은 예컨대 “激烈한 對立關係는 비단 business firm에만 通用되는 것이 아니라 政府나 大學 및 餘他의 enterprise에 있어서도”⁽⁴²⁾와 같이 표현하여 business firm과 enterprise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Albers, H.H.는 그의 새로운 著書에서 “經營學이란 business 및 기타 다른 종류의 組織에 있어서의 management의 實踐과 관련되는 基礎的原則을 提示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原則은 enterprise에 있어서 managerial task를 수행하는데 應用할 수 있는 것”⁽⁴³⁾이라고 하여 business와 enterprise를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英語使用國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用語上의 混亂이 있는데 이는 특히 organization, administration 및 management 사이에 생기고 있다고 하며⁽⁴⁴⁾ 學者에 따라서는 組織을 企業의 意味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⁴⁵⁾ management의 概念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 또는 사람들을 活用함으로써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意味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同意하고 있으나 이에도 混亂이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⁴⁶⁾.

이제 브레크(Brech, E F L)가 지적한 바 三用語間의 관계를 그의 定義에 따라 일단 組織의 問題를 ① 企業의 活動이 그와 같은 活動을 수행하는 (經營的 내지 監督的)職位에 있는

(38) Koontz, H & C. O'Donnell, Principles of Management, 4th ed., 1968, p. 742. Albers, H.H., Principles of Management, 3rd. ed., 1969, p. 3.

(40) cf. Koontz, H.H. & C. O'Donnell, op. cit., p. 744.

(41) cf ibid, p. 17. & p. 751

(42) cf. ibid, p. 17

(43) cf. Albers, H.H. Management, The basic Concepts, 1972, p. 3.

(44) Brech, E.F.L., Management, Its Nature and significance, 3rd. ed., 1953. p. 33.

(45) Koontz, H.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Koontz, H., & C. O'Donnell, ed. Management; A Book of Readings, 2nd. ed., 1968, 同日譯書, p. 46.

(46) cf. ibid, p. 47

人们 사이에 配分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責任과 義務(duties)의 構造(structure)이거나 혹은 ② 그와 같은 責務에 의해 사람들사이에 形成되어 있는 公式的인 相互關係(inter-relationships)의 構造⁽⁴⁷⁾로 본다면 이러한 用語上의 混亂은 administration과 management의 兩用語 사이에 생기는 混亂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브래크에 의하면 兩者는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前者를 더욱 넓은 一般的名稱(generic name)으로 보고 이는 工業(industry)이나 商業(commerce)에서 루이어지는 經營者的 統制(executive control)의 모든 過程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이를 (a) 計劃과 符合하도록 하여주는 適切한 節次의 設定과 維持 및 (b) 組織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指揮하고 統合하고 監督하고 나아가서 그 活動을 實行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責任 즉 企業(enterprise)의 活動을 能率的으로 計劃하고 規制(또는 指揮)하는 것에 대한 責任으로 定式的으로 定義를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administration은 計劃에 對比하여 [企業]活動의 進行이 規制되고 檢討되는 節次의 設定 및 實行과 관련되는 management의 一部分⁽⁴⁸⁾으로 定義하고 있음에 미루어 본다면 設令 兩者를 區分한다 하더라도 이에 既存의 獨逸經營學上의 概念인 Betrieb에 대한 譯語인 經營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은 混亂을 가져다 주는 用例라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에 經營이라는 譯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dministrative management에 대해 經營管理라는 譯語가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는 management에 대해 經營管理라는 複合語를 譯語로 사용되는 경우와의 混亂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歷史的으로 볼때 兩者는 交互的으로 시용되어 왔었다는 事實⁽⁴⁹⁾에 미루어서도 兩者에 대해 相異한 譯語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混亂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I. 用語 내지 概念의 整理를 위한 一試圖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經營學上 특히 漢字使用國에 있어서의 經營學上의 用語 내지 概念上의 混亂은 經營이라는 用語의 無原則한 使用慣行에서 派生된 것이므로 經營學의 認識對象으로는 實體概念으로서 企業으로 措定함이 私見에 의하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實體로서의 企業은 企業家가 企業家的 行動動因(entrepreneurial motivation)에 따라 企業目的을 設定하고 이러한 企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企業構成要素 즉 人的要素, 物的要素 및 技術的要素를 投入結合함으로써 形成되는 實體이므로 이는 단순한 財務經濟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단순한 物的 내지 共同經濟的 生產性과 관련되는 物的構成體만도 아니며 이는 人間과 物質 및 技術이 하나의 全體시스템(total system)으로 整序化되어 있는 目的構成體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企業이 주어져 있는 環境的制約與條件에서 企業目的

(47) Brech, E.F.L., op. cit., p. 37.

(48) cf. ditto.

(49) ibid., p. 35.

을 公正한 方法과 節次에 따라 合理的 内지 能率의으로 달성하기 위한 手段的行動으로서 生產 및 販賣와 같은 企業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諸構成要素의 複合體로서의 企業實體를 認識對象으로 하여 이를 諸構成要素의 相互關聯 내지 關係를 究明하는 企業構造 内지 組織實體의 究明과 나아가서 이러한 實體가 生動하는 實體로서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的過程으로서 수행하는 企業機能 内지 活動實體의 究明이 經營學이 앞으로 考究하여 할 課題가 아닐까 한다. 前者는 構造論的研究이며 後者는 機能論的研究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別途의 實體概念인 經營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概念의 混亂을 超克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 經營 内지 管理의 概念은 管理技術學의立場에서 行爲概念으로 파악하고 이는 目的達成을 가장 合理的 内지 能率의으로 組織構成員이 할 수 있겠금 이들이 目的達成을 위해 수행하는 業務를 計劃하고 統制하는 피드·백機能으로 본다면 經營 内지 管理는 어디까지나 企業機能에 대해서는 助成의 機能에 不過한 것이므로 이는 企業機能이 보다 合目的的으로 수행되겠금 助成하는 경우에 한해서 研究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兩者的結合을 통해 企業은 存續과 成長을 보다 能率의으로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目的達成을 보다 効果的으로 成遂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企業을 認識對象으로 하는 經營學은 企業實體의 構造와 機能의 樣式을 모델화하여 再現함으로써 어떠한 變數와 變數가 相互 構造關聯의으로 作用하여 어떠한 機能 内지 活動이 어떻게 수행되고 나아가서 이를 諸變數와 目的變數와의 關聯을 投入과 產出의 關係로서 理解함으로써 基礎科學의研究가 이루어지는 데 이와 같은 研究는 存在의 研究이다. 여기서는 企業이 어떻게 구성되고 目的是 어떻게 달성되며 目的이 能率의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構成要素에 의해 機能 内지 活動이 어떻게 計劃되고 統制되고 遂行되는가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企業實體의 存在에 대한 基礎科學의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보다 合目的的인 手段으로서의 企業活動의 遂行可能性 즉 存在當爲 따라서 아직 實踐面에서는 應用되지 아니한 企業 시스템의 操作可能性 内지 處理를 叙述하려는 應用科學의· 實踐科學의 研究도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러한 兩研究는 서로 밀접한 關聯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經營概念은 同義의 管理概念과 마찬가지로 行爲concept으로 파악되어 따라서 組織concept으로서는 企業實體만이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셸顿(sheldon, O)의 定義처럼 administration과 management을 역시 行爲concept으로 보나 그는 브레크(Brech, EFL)와는 달리 前者 즉 administration을 政策의 決定, 財務, 生產 및 販賣의 調整, 및 組織構造의 設定으로 보아 最高經營 内지 管理層(top management)⁽⁵⁰⁾이 수행하는 機能 内지

(50) 이때의 最高經營 内지 管理層은 組織階層의 뜻이므로 management의 用語가 二重의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問題가 있으나 이는 일단 論外로 하기로 한다.

活動으로 보고 後者 즉 management proper 는 administration 에 의해 設定된 限界內에서 政策을 執行하고 이에 앞서 特定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組織을 設定하는 것과 관련되는 機能으로 구별하는데 對應하여 經營과 管理를 구별하여 쓰는 것은 아니며 일단 이를 同意語로 보기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셀돈의 區別은 經營 内지 管理階層의 區分上 前者は 上位의 最高經營 内지 管理階層의 機能이며 後者は 中位 및 下位의 中間經營 内지 管理層 및 監督 内지 現場經營 内지 管理層의 機能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러한 區別은 그대로 受諾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管理過程(management process) 内지 管理循環(management cycle)으로 불리워지는 一連의 活動 즉 計劃(planning), 組織(organizing), 充員(staffing), 指揮(directing) 및 統制(controlling)의 一過程活動인 計劃過程에서 수립되는 計劃의 類型(types of plan)에는 目的(objectives) 内지 目標(goal); 政策(policies), 節次(procedures), 規則(rules), 프로그램 内지 實行計劃(programs), 豫算(budgets) 및 戰略(strategies)의 設定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⁵¹⁾ 때문에 사실상 이의 구별은 어렵다고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V. 結　　言

用語 内지 術語上의 混亂은 概念의 不明瞭化를 招致하여 결과적으로는 經營學의 醇化發展을 沮害시켜주는 主因이 되는 것인데 漢字使用國에 있어서는 특히 「經營」이라는 用語의 濫用에 이어한 混亂이 加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濫用의 慣行은 時代를 달리하고 또한 그 發生의 源源과 發想이 다른 獨逸經營學的研究成果와 美國經營學的研究成果가 移入됨에 따라 前者的 用語에 對應하여 사용되어오던 譯語 内지 用語를 無批判의 으로 後者の 用語에 對應시켜 사용하였기 때문에 派生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後進的立場에서 先進國의 研究成果를 受容할 수 밖에 없는 경우 先進兩國에 있어서의 企業의 特殊性과 思想的 内지 學問的傳統의 獨自性에 따른 多樣한 研究 内지 認識 對象의 指定과 이들 對象에의 接近方法의 特殊性 内지 差異를 옳바르게 評價한 바탕위에서의 受容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과적으로 漢字使用國에 있어서의 用語 内지 概念上の 混亂은 研究 内지 認識對象의 指定과 研究方法의 差異에서 派生된 것이라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經營學의 科學的 性格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經營學이 科學이라는데 대해서는 異論이 없으나 問題의 設定 즉 認識傾向 内지 考察方法이 어찌나에 따라 存在를 다루는 理論科學 内지 純粹科學的研究와 存在當爲를 다루는 實踐·應用 内지 規範科學的研究로 나누어질 수 있는 데 前

(51) Sheldon, O. The Philosophy of Management, Brech, E.F.L. op. cit., p. 39.

(52) Cf. Koontz, H. & C. O'Donnel, op. cit., pp. 84~92.

者는 存在把握과 現實認識을 指向하는 것인데 대해 後者は 存在設定과 現實形成을 각자 最終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經營學에 基礎科學的研究를 指向하는 研究方向과 應用科學的研究를 指向하는 研究方向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兩研究 즉 基礎부문과 應用부문은 서로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어서 前者は 後者の 不可缺의 構成要索로서 이에 先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理論的基礎作業이 不充分한 경우 實踐的處理方案에 관한 提案은 반드시 現實의 解決에 有用한 것이 될 수는 없는데 그 까닭은 基礎研究가 不充分하다는 것은 바로 現實에 있어서의 本質的인 影響要因 또는 이들의 關聯을 옮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이를 看過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應用科學的研究도 결과적으로는 不完全한 것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經營學⁽⁵³⁾의 研究對象은 과연 經營인가? 쉐프트글(Schönpflug, F.)에 의하면 經營(經濟)學으로는 對象規定이 未洽하여 經營을 마치 先驗的對象(?)인양 받아들이고 이를前提로 이의 學間的性質이다 특수한 認識過程 및 그 對象에 固有한 考察方法을 다루었었기 때문에 方法論의 문체만이 주로 다루어졌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經營을 經營學의 認識 내지 研究對象으로 거의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知識의 存在拘束性에 따라 獨逸의 經營學의 思惟가 종래 営利中心의 企業概念에서의 脱却을 위해 代替的으로 동일한 存在實體에 대해 經營을 認識對象으로 指定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곧 既存의 學間的傳統上 定立되어 온 企業이 営利性을 本質概念으로 하였었고 또한 經營學前史의 成果인 商業學, 商業經營學, 私經濟學 및 個別經濟學의 體系가 이러한 概念을 바탕으로 形成되었으므로 이러한 成果를 否定할 수 없음은 물론 企業concept의 再定立이나 利益의 當爲性은 舉論조차 할 수 없었고 또한 公企業 및 協同組合등과 같은 經驗對象의 多樣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包括的으로 認識하려는 努力이 經營이라는 새로운 認識對象을 指定치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獨逸經營(經濟)學上 企業과 經營의 概念的 區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暗默的으로는 이를 實體上 같은 것으로 보는 傾向이 있음에 미루어 사실상 企業과 經營의 概念的區別은 그 必然性이 없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만 知識의 存在拘束性이 있음을 實感케 하여 줄 따름인 것이다. 사실상 史實에 비추어 볼때 不勞所得然(?)한 利益에 대한 嫌惡感이 一般化되고 있었음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利益이 만약 實物形態 즉 直接的인 欲求充足手段의 形態로 제공된다면 이는 非難의 對象이 될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生活

(53) 獨逸의 경우 經營〔經濟〕學의 名稱에 대하여 專門科學界에서 받은 批判은 “이러한 學問名稱도 理想으로서 要求되는 論理的一義性을 가지지 못함을 證明하는 것”(Schönpflug, F., a a O S.10)이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批判의 例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리거(Rieger, W.)는 말하기를 “나는 統一的인 經營經濟學은 存在하지 않으며 存在할 수 없다고 確信하고 있다. 이 名稱은 다만 보다 強은 名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選擇된 것이라 하고 있다”(Rieger, W. Einführung in die Privatswirtschaftslehre, 1927. S. 2).

즉 欲求充足의 持續을 위한 欲求充足의 手段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設令 애럼·스미드(Smith, A)가 그것을 必要惡이라고 規定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當爲視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企業의 投入과 產出 즉 費用과 收益의 差額으로 파악되는 利益이 企業의 協同過程에의 諸參與者에게 貨幣形態로 配分된다고 할 때 그것은一般的 내지 間接的 欲求充足의 手段이 되는 것이므로 이도 前者와 마찬가지로 當爲의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問題는 이와 같은 利益의 取得이 企業行爲의 公正性 내지 倫理性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利益의 獲得은 當爲의 歸結이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經營學의 研究對象 내지 認識對象은 目的構成體로서 形成되어 存續하고 있는 有機的 實體로서의 企業으로 措定하고 이 概念에 따르는 营利性은 企業의 營業成果의 評價를 위한 貨幣價值計算에 의해 測定되는 剩餘概念으로 보면 概念의 混亂도 脫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獨逸經營學上의 混亂은 하나의 目的構成實體인 企業에 대해 「企業」과 「經營」이라는 相異한 認識對象을 措定함으로써 派生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獨逸經營學의 研究成果가 漢字使用國의 經營學界에 移入는데에 뒤이어 美國의 管理技術論的研究成果가 다시 移入되자 既往에 移入하였던 獨逸經營學的概念에 대응하여 사용하던 譯語인 「企業」과 「經營」이라는 用語를 아무런 概念的檢討없이 英語上의 用語 내지 術語에 無批判的으로 對應시켜 사용함으로써 漢字使用國의 經營學의 基礎概念上에 混亂이 加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混亂을 超克하기 위해서는 混亂을 加重化시키고 있는 것인 바로 「經營」이라는 用語의 無原則한 使用慣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私見에 의한다면 經營學의 認識對象으로는 實體概念으로서의 企業을 措定함이 合理的이며 이때의 企業概念은 企業家가 企業家的行動動因에 따라 利益⁽⁵⁴⁾獲得이라는 企業目的을 設定하고 이러한 企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企業構成要素 즉 人的要素, 物的要素 및 技術的要素를 投入 結合함으로써 形成되는 實體로서 이는 人間과 物質 및 技術이 全體시스템(total system)으로 整序化되어 있는 目的構成體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企業形成 및 運營過程에서 企業家가 수행하는 모든 機能이 바로 企業家機能(entrepreneurial function)인데 이러한 機能은 오늘날 經營者(manager)에 의해 代位되어 이들 經營者가 수행하고 있다⁽⁵⁵⁾.

이에 대해 經營 내지 管理概念은 同意語로서 行爲概念으로 파악함이 보다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兩概念사이에 本質的인 差異는 인정될 수 없으며 歷史的으로도 兩者는

(54) 이때의 利益은 剩餘概念이며 이는 革新을 創出하기 위한 經濟的 協同過程에의 모든 參與者에게 均霑的으로 配分되어야만 하는 性質을 가진 것이며, 配分된 利益은 協同過程에의 參與者의 間接的 내지 一般的 欲求充足의 手段이 되는 것이다.

(55) 이러한 機能의 代位過程에 대해서는拙稿「企業家機能의 本質에 관한 考察」 서울大學校商科大學韓國經營研究所, 「經營論集」第1卷 第1號, 1967.3. pp. 22~28 參照.

交互의으로 使用되어 왔으므로 兩者를 區別한다는 것은 實益이 없으며 오히려 混亂만 加重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經營과 管理를 區別하는 경우 前者は 管理階層上 最上位에 있는 最高管理層(top management)이 수행하는 活動만 指稱하므로 이러한 區分은 사실상 手段的 行爲로서의 企業活動의 보다 合目的的, 合理的 内지 能率的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行動에 대해 計劃을 세우고 組織을 하고 充員을 하고 指揮를 하고 統制하는 包括的인 管理 技術活動의 一部만을 部分的으로 概念한 것이 되어 오히려 概念의 不明瞭化를 招致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Re-examination of Basic Concept of Business Management.

—especially in relating with the concept of enterprise,
business and management—

1. It can be legitimately expected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iculty or confusion in terminology and conceptual framework of a new branch of knowledge or a scientific study. In a sense, it is a characteristic of newly formed discipline and this confusion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continual exertion of discussion, exchange of experience, and intentional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nd then greater uniformity in the use of terms and concepts will emerge, and eventually general acceptance of standard terms or concepts will be prevalent. Therefore, if there is any confusion with terms and concepts in a field of some disciplines, it can be assumed that these confusion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that discipline.

The worst confusion in Korean business management(*) study appears to have arisen from the overlapping use of the Korean terms, "Kyung Yung" (usually, which means the administration and/or management) without any critical examination of its conceptual foundation. It is because this term, which was traditionally used as a corresponding korean terms for the German term of "Betrieb" (which usually means organization or physical production unit), is now used as corresponding term for American words of "Administration" and/or "Management".

2.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study of business management has scientific nature,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recognizing methods of its proper object.

(*) It is temporally used by the author. It is because, in a real there is no corresponding German term for the Business Management, sense, corresponding study of the Business management in Germany is called in terms of "Betriebswissenschaft."

The one is to study the existence of business or its operations and the other is to study the existence-to-be of business or its operaions. The former is a theoretical or pure scientific study which is to discover the existence, essence, their relation and laws. Hence, the former approach is trying to describe the reason why "existence" is likely to be so. The latter is a practical, applied and/or normative scientific study which is to study new means, methods or objectives of business for the problem-solving. In other words, the latter approach is trying to study, so called, the "formulated existence" that is designed by the logical reasoning or thoughts of students in relating with the formation of existence, the esscence and the law or principles of formulation. These findings of the latter will be applied to the solution of realistic problems with confidence.

These two studies have close relationships and the former study is prerre-quistive study for the latter. In this sense, applied scientific study of business differs from the pure technicue of business management which is accumulated and practiced empirically by practioners.

3. In a German study of business management,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st students did not clearly defined the object of its study and they tacitly accepted the "Betrieb" as an a-priori object of its study except only Nicklisch, H. and Rieger, W. In defining object of those study, there were two tendencies. The one is to define the "Unternehmung" (which means usually the profit-making institution), and the other is to define the "Betrieb" (which means usually an organization or physical production unit) as the object of its study.

These tendencies have influenced on the Korean and Japanese studies of business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se influence, the most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have defined the "Betrieb" or "Betriebswirtschaft" as an object of its study.

But we could not agree win the general viewpoint to define the "Betrieb" as the object of business study. It is because the conceptual discrimination between of "Unternehmung" and "Betrieb" was allegedly imagined that the German students were trying to avoid from the traditional narrow concept of "Unternehmung" which has been used from the outset of "Handelswissenschaft" to the begining of "Betriebswirtschaftslehre"

In this sense, I will define the "Unternehumung" as an object of the study

on the ontological basis of business entity.

4. We may assume that the conceptual confusion with the German study of business has been aroused by defining the object of study in dualistic ways, such as Unternemung and Betrieb, while these two concepts depict the one business entity. After these German studies have been adopted by the oriental countries, we have coined the corresponding terminology to these German terms and that it was used as if it were our proper words. But after the American studies improted, the terminology "Kyung Yung" coined by oriential countries was used as if it were the corresponding American term of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without any logical consideration or examination of the conceptual differences. Consequently, it seems that the confusion in terminology and concept real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our study.

So I tentatively conclude that the object of business study ought to be "Ki-up" which requires the reconsideration of profit, and "Kyung-yung" should be used as "Kwan-Ri" in synonymous.